

한국,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

WC최종예선, 우즈베크 무승부... 이란과 2-2 무승부 거둔 시리아 추격 뿌리치고 조 2위

한국이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5일(한국시간) 자정 타슈켄트의 분요도코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즈베크스탄과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10차전 최종전에서 0-0로 비겼다. 이날 무승부를 기록한 한국은 4승3무3패(승점 15)를 기록하며 같은 시간 이란과 2-2 무승부를 거둔 시리아(승점 13)의 추격을 뿌리치고 조 2위로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을 따냈다. 시리아는 우즈베크와 동률을 이뤘지만 골득실에 앞서며 조 3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 우즈베크스탄은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중국(승점 12)은 카타르(승점 7)에 2-1로 승리를 거두면서 A조 5위로 최종예선을 마쳤다. 이날 신 감독은 우즈베크스탄 필승의 카드로 3-4-3 포메이션을 꺼내놓았다. 황희찬(찰츠부르크)을 왼쪽 스트라이커로, 좌우 날개에 손흥민(보르네)과 이근호(강원)를 배치한 스리톱 전술을 내세웠다. 미드필드에서 김민우(수원)와 고요한(서울)이 좌우 양백으로 나서고 중앙 미드필더 조합은 권창훈(디종)-정우영(충청)이 자리를 잡았다. 스리백은 중앙에 장현수(FC도쿄)를 중심으로 왼쪽 김영권(광저우)과 오른쪽 김민재(전북)가 포진했다. 골키퍼 장갑은 김승규(빛셀 고베)가 썼다. 한국은 전반 1분 황희찬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수를 등진 상태로 왼발 터닝 슈팅을 날렸지만 크로스바를 맞고 나가며 아쉬움을 삼켰다. 이후 한국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우즈베크의 압박에



5일(현지시간) 오후 우즈베크스탄 타슈켄트 분요도코르 경기장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대한민국 대 우즈베크스탄의 경기, 손흥민이 볼을 팀 동료들에게 연결하고 있다.

고전하며 힘든 경기를 펼쳤다. 우즈베크는 한국의 왼쪽 측면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 공격을 시도했다. 한국은 수비에 집중한 후 역습을 노렸지만 우즈베크의 압박을 뚫지 못했다. 한국은 전반 43분 장현수가 부상으로 나가고 구자철이 투입되면서 변화를 시도했다. 전반 45분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오른쪽 부근에서 날린 슈팅이 또 다시 골대를 맞고 나오며 땅을 쳤다. 후반 초반 한국이 강하게 압박하며 선제골을 노렸지만 후반 1분 황희찬이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골키퍼가 편정한 볼을 오

버헤드킥으로 연결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한국은 후반 12분 이근호가 페널티박스 왼쪽 부근에서 김민우와 2대1 패스를 주고 받은 후 슈팅을 날렸지만 또 다시 골대를 벗어났다. 후반 18분 권창훈을 빼고 염기훈(수원)을 투입하면서 두 번째 교체 카드를 사용했다. 한국의 공격이 살아났다. 후반 20분 김민우의 왼발 슈팅이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혀 아쉬움을 삼켰고 2분 뒤에는 황희찬의 슈팅도 골문을 외면했다. 이후 한국은 볼 점유율을 높이며 우즈베크 골문을 노렸지만 좀처럼 득점 기회를 잡지 못했다. 한국은 후반 33분 마지막 교체

카드로 이근호를 빼고 이동국(전북)을 투입하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이동국은 후반 40분 김민우의 크로스를 헤딩슛으로 연결하며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아쉬움을 삼켰다. 한국은 후반 44분 이동국의 슈팅이 골키퍼 맞고 흐른 것을 손흥민이 재차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대를 외면했다. 결국 승부를 가리지 못한 양 팀은 득점 없이 무승부를 거두며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다. /김민근기자



KLPGA상위랭커 '이수그룹 챔피언십' 샷대결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상급랭'을 놓고 어느 해보다 경쟁이 치열하다. 하반기 메이저대회 등 특급대회가 연이어 열리는 가운데 대회를 거듭할수록 상급왕 타이틀의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시즌 3승으로 다승 공동 선두인 이정은(21·KB금융그룹)은 생애 첫 메이저대회에 등극했다. 3억5000만원의 잭팟을 터뜨리며 누적 상금 6억3462만원을 기록, 상금 순위 8위에서 3위로 경쟁 뛰었다. 지난주 '한화 클래식'에서 우승한 오지현(21·KB금융그룹)은 생애 첫 메이저대회에 등극했다. 3억5000만원의 잭팟을 터뜨리며 누적 상금 6억3462만원을 기록, 상금 순위 8위에서 3위로 경쟁 뛰었다. 하반기 총상금 8억원의 3개의 메이저 대회가 남아 있고, 우승 상금만 3억원인 특급 대회도 앞두고 있다. 1위부터 5위까지 상금액 차이는 2억8000만원 정도다. 이런 가운데 7일 경기도 가평에 있는 베네스트 골프클럽(파72·6538야드)에서 열리는 시즌 3번째 메이저 대회인 이수그룹 KLPGA 챔피언십에는 상급랭킹 상위권 선수들이 출품된다. 상금 1위 이정은과 3위 오지현은 지난 시즌 이 대회 우승자인 배선우(22·삼천리)와 같은 조에 편성됐다. 상금 2위 김지현은 4, 5위인 김해림과 김지현과 지준심 대결을 펼친다. /김민근기자

김현수, 2경기 연속 멀티히트

메츠전 5타수 2안타

김현수(29·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올 시즌 처음으로 2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때려냈다. 김현수는 6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플러싱의 시티 필드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뉴욕 메츠와의 경기에서 6번 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전에 5타수 2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이날까지 최근 6경기에서 타율 0.364(22타수 8안타) 2타점 2득점으로 맹타를 휘둘렀다. 전날 메츠전에서 4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던 김현수는 2경기 연속 멀티히트 행진을 벌였다. 김현수의 시즌타율은 0.228에서 0.234(197

타수 46안타)로 올라갔다. 0-1로 뒤진 2회초 1사 1루에서 첫 타석을 맞은 김현수는 상대 선발 제이콥 디그롬과 풀카운트까지 간 끝에 좌전 안타를 뽑아냈다. 김현수의 안타로 1사 1, 2루의 찬스를 일군 필라델피아는 상대의 실책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이후 2사 2, 3루에서 벤 라이블리가 2타점 적시타를 날려 3-1로 역전했다. 김현수는 라이블리의 적시타 때 시즌 18번째 득점을 올렸다. 4회 선두타자로 나서 다시 디그롬을 상대한 김현수는 2구째 투심 패스트볼을 노려쳐 좌익수로 앞으로 굴러가는 안타를 때려냈다. 김현수는 후속타자 J.P. 크로포드의 병살타 때 2루에서 아웃됐다. 김현수는 4회 한 차례 더 타석에 들어섰지만, 김현수는 9-1로 달아난 2사 2루 상황



에서 삼진으로 물러났다. 김현수는 6회와 8회에도 모두 삼진을 당해 안타를 추가하지 못했다. 필라델피아는 장타 17안타를 몰아친 타선을 앞세워 9-1로 이겼다. /김민근기자

평창올림픽 입장권 2차 온라인 실시간 약 1만5000매 · 32억원 어치 판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판매된 첫 날 32억원 상당이 팔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5일 오후 2시부터 입장권 2차 온라인 실시간 판매를 시작했다. 조직위는 5일 오후 2시부터 6일 0시까지 결제 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약 1만매(18억원 상당)가 판매됐다고 6일 밝혔다. 무통장 미입금권 것을 포함하면 약 1만5000매, 32억원 어치가 판매됐다. 결제 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가장 인기가 높은 종목은 피겨스케이팅으로, 1988매가 판매됐다. 아이스하키가 1394매가 팔려 두 번째로 인기가 높았다. 스키점프(975매), 컬링(932매)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반면 스켈레톤(123매), 루지(150매), 노르딕복합(194매) 등은 판매가 저조했다. 2차 온라인 실시간 판매가 시작된 후 조직위 홈페이지에는 4만명이 로그인했다. 1차 판매 3만2000명과 비교해 23% 증가한 수치다. 입장권 구매자는 PC가 85%에 달했고, 15%가 모바일로 구매했다. 온라인 실시간 판매는 내년 2월 대회 기간까지 진행되며 VISA카드와 계좌이체로 구매할 수 있다. 조직위는 2차 판매 단계에서 약 45만매의 물량을 오픈했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